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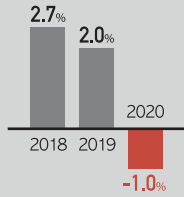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4

2020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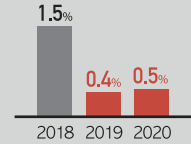
성장

-1.0%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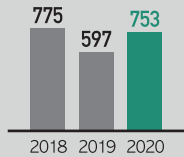
물가

0.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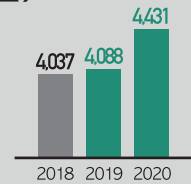
경상수지

753억 달러(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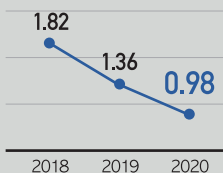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4,43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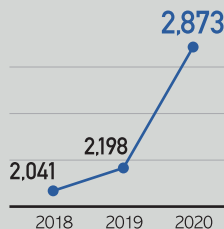
금리(연말 기준)

0.98%
국고채(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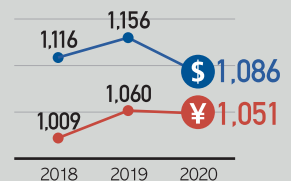
주가(연말 기준)

2,873
KOSPI



환율(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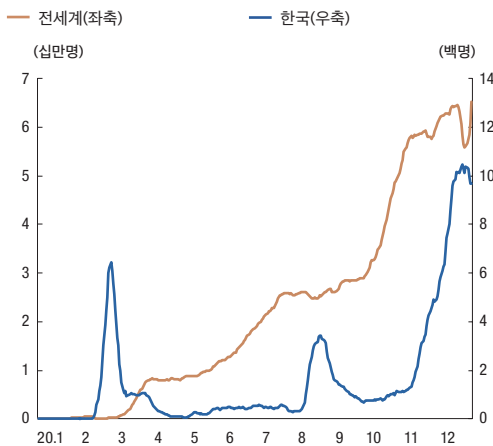
\$ 1,086 원/달러
¥ 1,051 원/100엔



1. 실물경제

2020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방역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초 감염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경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진정 조짐을 보이다가 5월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되자 재차 증가하였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2월 중 크게 확산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진정되었다. 이후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다가 11월을 지나면서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

그림 II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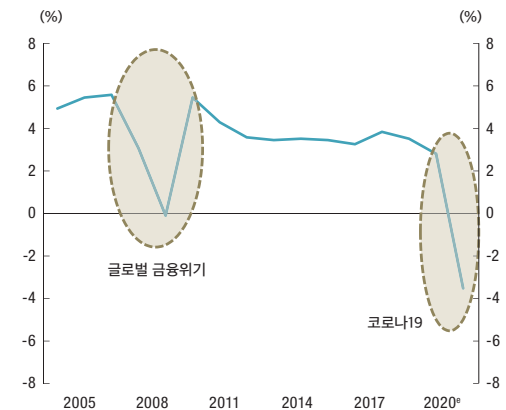
주: 1)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Worldometer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위축

2020년 중 세계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축되었다⁸⁾. 세계 GDP 감소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저히 큰 4% 내외로 추정⁹⁾된다. 이는 해외여행 등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 - 2. 세계경제 성장을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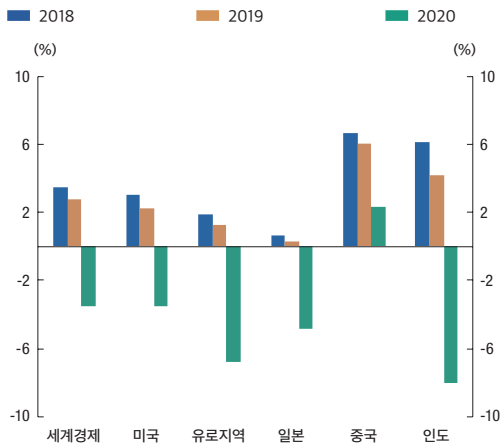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재정 여력, 코로나19 확산양상, 주요 수출 품목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8) 2020년 중 경제 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IMF 통계 입수가 가능한 1980년 이후 종전까지 세계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던 해는 2009년(-0.1%)이 유일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IMF는 -3.5%로, World Bank -3.7%로, OECD -3.4%로 추정하고 있다.

가 반등하다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재차 위축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비 회복이 더뎠다. 신항국 가운데 중국은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방역과 생산활동 조기 정상화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인도는 강도 높은 봉쇄 조치로 경기 위축폭이 더욱 컸고, ASEAN 국가들의 경우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었으나 내수는 부진하였다.

그림 II - 3.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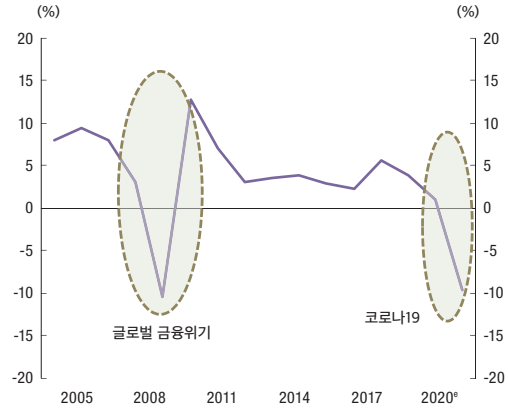


주: 1) 세계경제 및 인도의 2020년 성장률은 IMF(2021년 1월) 추정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IMF

세계교역 부진

2020년 세계교역 역시 크게 부진¹⁰⁾하였다. 상품교역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된 5월 이후 선진국의 상품소비 개선에 힘입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서비스교역은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인적교류가 제한되며 부진이 이어졌다.

그림 II - 4. 세계교역 신장률 추이¹⁾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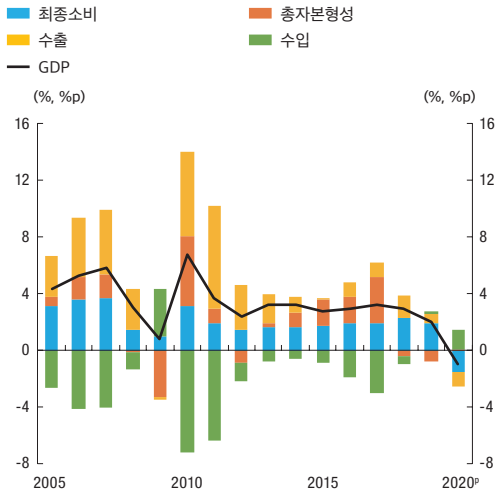
나. 국내경제

(1) 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처음으로 감소(-1.0%)하였으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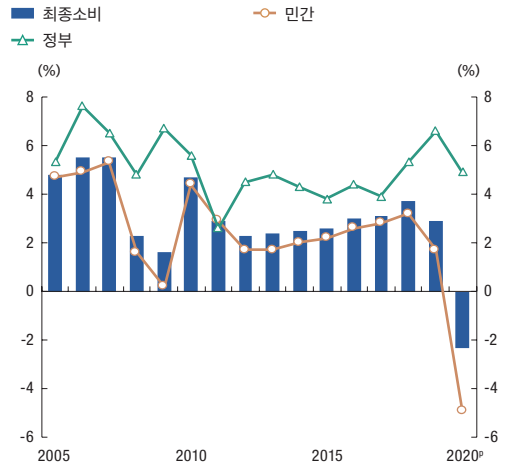
10) 1980년 이후 세계교역이 감소한 사례는 1982년(-1.6%)과 2009년(-10.4%)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2020년 중 감소폭은 2009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정된다.(IMF -9.6%, World Bank -9.5%, OECD -10.3%)

그림 II - 5.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¹⁾

주: 1) 2019년, 2020년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정부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하면서 2.3%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폭 증가(0.2%)하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외부활동 자제 등의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대면 서비스 소비가 크게 줄면서 4.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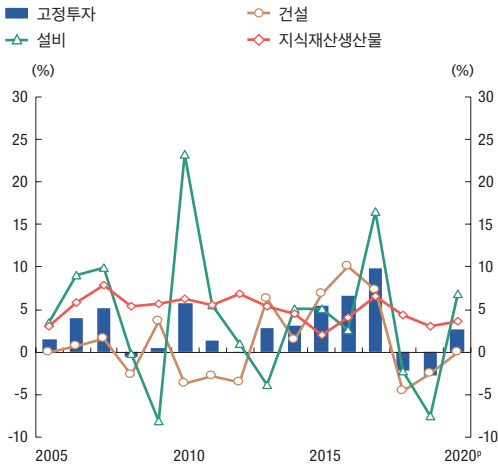
그림 II - 6. 소비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는 건설투자가 소폭 줄었으나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감소(-8.1%)하였던 설비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신성장 부문 투자가 늘면서 IT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조정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다만 공사 차질 등 감염병 확산의 건설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투자 및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모두 늘면서 3.6% 증가하였다.

그림 II - 7. 고정투자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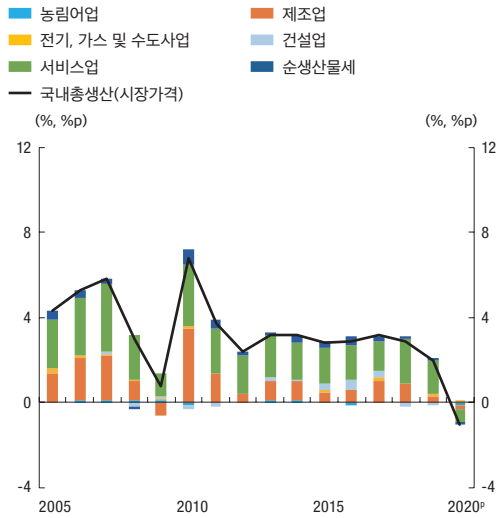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재화 수출은 IT제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류, 석유제품 등 비IT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해외 공장 생산 차질로 완성차와 부품이 모두 감소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재화 수입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여행 및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입이 큰 폭 줄면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감소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코로나 19 충격으로 전년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그림 II - 8.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IT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3%) 이후 처음으로 감소(-0.9%)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이외 제조업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표 II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1998	2008	2009	2018	2019 ^p	2020 ^p
제조업	-7.1	3.5	-2.3	3.3	1.3	-0.9
화학제품	0.2	0.3	3.1	2.5	-0.2	1.1
1차금속	-9.3	-8.0	-4.3	-3.8	-0.9	-4.2
금속제품	-12.0	-9.5	-9.9	-1.3	-2.5	-7.3
컴퓨터, 전자 및 광학	29.3	9.2	5.9	11.4	6.2	4.1
기계 및 장비	-35.4	6.6	-7.9	0.7	-3.8	1.0
운송장비	-26.1	10.5	-15.3	-2.3	4.2	-9.6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1998년(-2.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1.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세를 이어갔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과 같은 대면서비스 부문이 크게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표 II-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1998	2008	2009	2018	2019 ^P	2020 ^P
서비스업	-2.4	3.9	2.0	3.8	2.9	-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9	1.6	-0.5	2.9	1.1	-5.7
운수업	-5.9	4.8	-4.5	3.7	0.4	-15.7
금융및보험업	-4.7	6.1	5.8	5.6	4.4	8.2
사업서비스	-8.8	5.8	1.6	3.8	2.7	-0.6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3.8	3.7	7.8	8.2	8.7	1.2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건물건설의 조정흐름이 이어지며 전년대비 0.9%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은 3.4% 감소한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5.8% 증가하였다.

(2)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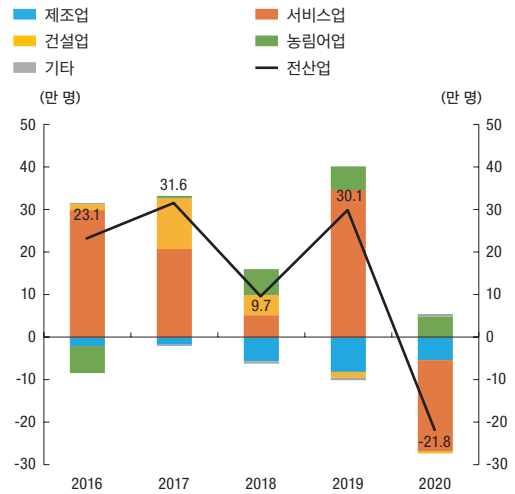
취업자수 큰 폭 감소

고용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취업자수 감소폭(-21.8만 명)은 1998년 외환위기(-127.6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고용은 대외여건

악화로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설업 고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9.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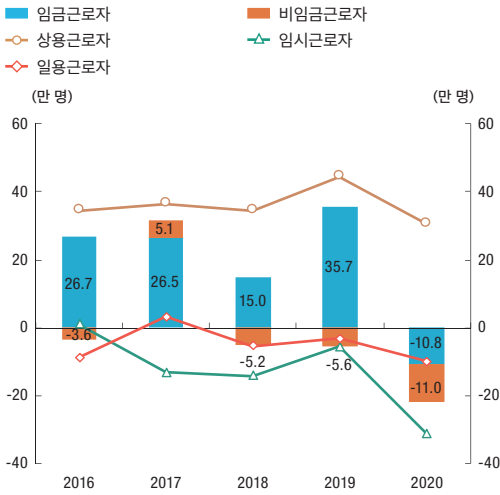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고용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30~59세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15~29세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한 반면, 60세 이상은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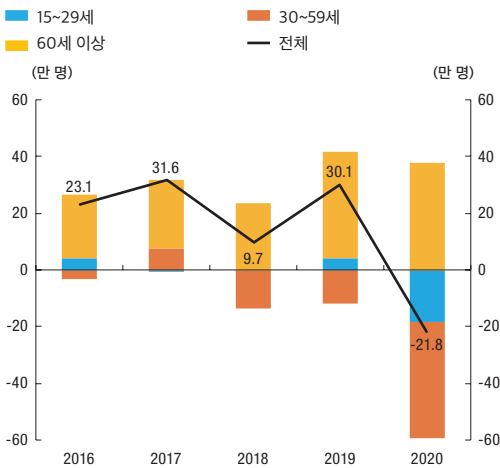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II- 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II- 11.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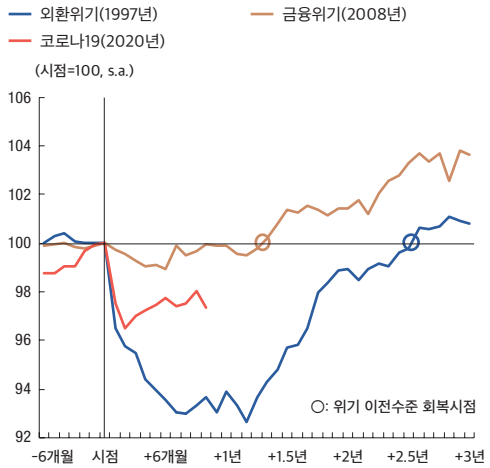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자수(계절조정) 추이를 보면, 3~4월 중 큰 폭 감소한 뒤 5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12월에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취업자수가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 경제위기 시에는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외환위기의 경우 31개월, 금융

위기의 경우 16개월이 소요되었다. 금번 코로나 19 충격의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 12. 위기별 고용경로¹⁾



주: 1) 위기 발생시점은 외환위기 97년 12월, 금융위기 08년 11월, 코로나19 20년 2월

자료: 통계청

표 II- 3. 고용 관련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활동인구	2,742	2,775	2,790	2,819	2,80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0	1.2	0.5	1.0	-0.6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3.3	62.5
취업자수	2,641	2,672	2,682	2,712	2,690
취업자수증감	23.1	31.6	9.7	30.1	-21.8
실업률	3.7	3.7	3.8	3.8	4.0
(15~29세)	9.8	9.8	9.5	8.9	9.0
고용률	60.6	60.8	60.7	60.9	60.1
(15~64세)	66.1	66.6	66.6	66.8	65.9

자료: 통계청

임금 상승폭 크게 축소

명목임금은 1.1% 상승하여 2019년(3.4%)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근로자 감소의 영향으로 높아졌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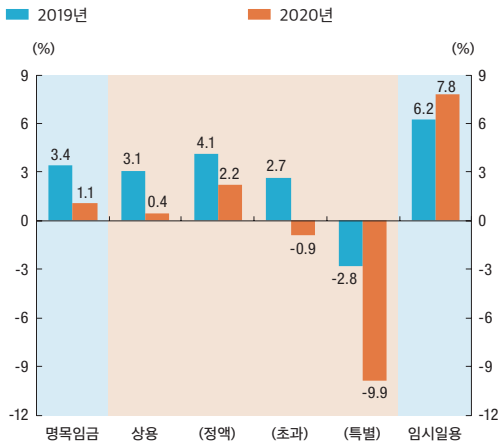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표 II - 4. 임금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목 임 금 ¹⁾	3.8	3.3	5.3	3.4	1.1
(실 질 임 금) ²⁾	2.8	1.3	3.7	3.0	0.5
시 간 당 명 목 임 금 ³⁾	5.1	5.2	6.8	3.9	2.6
노 동 생 산 성 ⁴⁾	3.1	3.9	4.5	1.6	1.7
단 위 노 동 비 용 ⁵⁾	2.0	1.3	2.2	2.2	0.9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II - 13.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3) 물가

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지속

2020년 중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하며 전년(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한 데다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도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반기 중 크게 상승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내 육류 수요 증가 등으로 축산물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6.7%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5.7% → -7.3%),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은 0.8% 상승하며 전년(0.7%)과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하반기 들어 도시가스요금이 인하¹²⁾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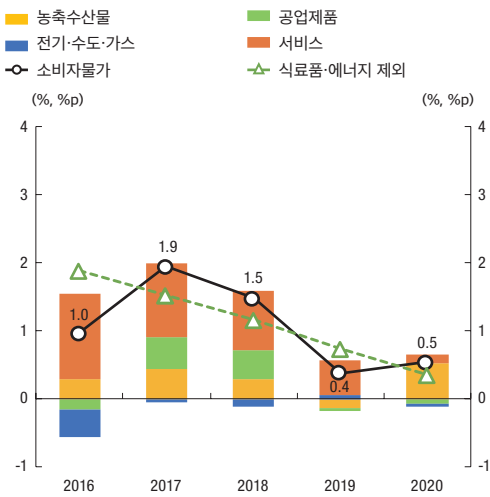
11)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평균임금이 상승(구성효과)한 데 기인한 결과이다.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반영하여 2020년 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1.2% 인하하였다.

전년대비 1.4% 하락하였다. 한편 서비스물가는 0.3% 상승하며 전년(0.9%)에 비해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고교무상교육 확대 시행¹³⁾,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공공서비스물가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0.5% → -1.9%) 개인서비스 물가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숙박·외식 등 대면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1.9% → 1.2%).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0.4% 상승하며 2019년(0.7%)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II -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자료: 통계청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매매가격¹⁴⁾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중 5.4%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9년 하반기에 상승 전환¹⁵⁾된 이후 2020년 들어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수도권은 2020년 상반기에 상승 전환¹⁶⁾된 이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더욱 커졌다.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II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19			2020		
	05~09 평균	10~14 평균	15~19 평균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7	1.6	1.3	-0.4	5.4	2.0
<수도권>	9.1	-1.0	2.4	0.5	6.5	3.1
<비수도권>	1.8	4.5	0.3	-1.1	4.3	1.0
주택전세가격	4.0	5.5	0.7	-1.3	4.6	1.1
주택월세가격	-0.6 ¹⁾	-0.8	1.1	0.2

주: 1) 16~19년 평균(시계열이 15년 6월부터 시작)
자료: 한국부동산원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폭이 확대된 753억 달러 흑자¹⁷⁾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자동차, 철강 등 BIT

13) 2020년 4월 중 고교무상교육이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9월 중에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상당수 지역에서 조기에 시행되었다.

14)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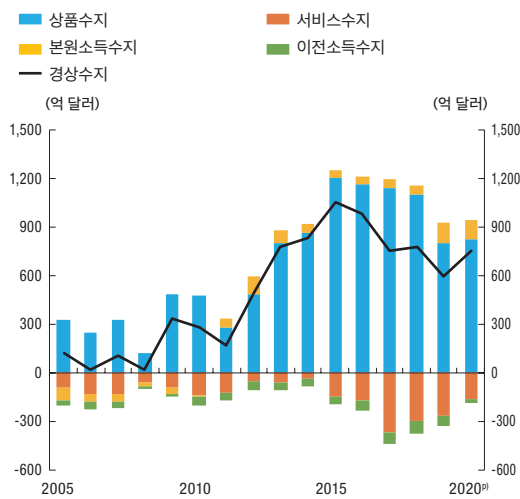
15)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상반기 중 1.0% 하락하였다가 하반기에는 1.4% 상승하였다.

16)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상반기 중 -0.9%, 하반기 -0.2%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17) 2020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33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작은 데 주로 기인한다.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저유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흑자폭은 소폭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및 운송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수입과 지급이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폭을 기록하였다.

그림 II - 15.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상품 수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5,1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3.9%)를 크게 하회하였는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의 수출이 디지털 경제 확산,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IT제품 수출은 디스플레이패널이 국내생산 규모 감축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는 서버 및 모바일 수요를 중심으로, 컴퓨터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교육 확산 등으로 증가

하였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과 화공품은 유가 하락 등으로, 자동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생산차질 등으로, 철강과 기계류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주요 품목이 모두 부진하였다.

표 II - 6. 주요 품목별 수출

	2019		2020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19.7	<32.6>	3.8	<35.8>
반도체	-25.4	<17.8>	5.4	<19.9>
무선통신기기	-17.6	<2.6>	-6.4	<2.6>
디스플레이패널	-17.0	<3.8>	-12.2	<3.5>
컴퓨터	-14.7	<1.6>	46.0	<2.5>
비IT 제품	-5.0	<67.4>	-10.0	<64.2>
자동차	2.4	<12.0>	-14.1	<10.9>
석유제품	-12.0	<7.6>	-40.2	<4.8>
화공품	-8.9	<12.4>	-1.2	<13.0>
기계류	-2.4	<10.4>	-8.1	<10.1>
선박	-5.6	<3.6>	-2.0	<3.7>
총 수출 ¹⁾	-10.4	[5,422]	-5.5	[5,125]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상품 수입 감소

수입(통관 기준)은 4,6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수입도 의류 등 비내구소비재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장비·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표 II - 7. 주요 품목별 수입

(%)

	2019		2020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9.0	<50.5>	-18.8	<44.1>
자본재	-5.6	<32.8>	7.4	<37.9>
전기·전자기기	0.1	<20.0>	4.6	<22.5>
기계류·정밀기기	-16.2	<10.1>	14.2	<12.4>
(반도체제조장비)	-44.6	<2.1>	62.8	<3.7>
소비재	3.6	<16.8>	-0.4	<18.0>
총수입 ¹⁾	-6.0	[5,033]	-7.1	[4,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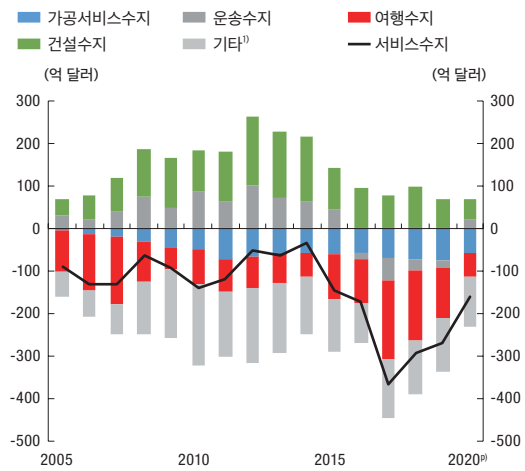
주: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162억 달러 적자로 2019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 코로나19로 수입과 지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가공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운송수지는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림 II - 16.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호조에 힘입어 증가한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제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및 숙박·음식 등이 부진하면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요동향¹⁸⁾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충청권에서만 증가하였고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제주권을 비롯하여 다른 권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업황 악화 등으로 상반기에 큰 폭 하락한 후 개선되었으나 모든 권역에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착공면적이 수도권에서 상업용 건물 착공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하였

18)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고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는 주거용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제주권에서는 큰 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로 인해 감소하였다. 특히 동남권과 호남권에서 석유화학·정제 등이 부진하면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충청권 등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대부분의 권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호남권에서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관련 서비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주택 수급 우려,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개발호재가 더해져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권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주택전세 가격은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

표 II - 8. 2020년 권역별¹⁾ 주요 지표^{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6.9	-7.2	-3.3	-2.7	-7.8	-5.0	-5.2
서비스업생산지수 ²⁾	-0.5	-3.2	-3.0	-1.6	-3.6	-4.9	-10.4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4.3	-1.3	0.8	1.7	-1.2	-0.7	-26.9
설비투자 BSI ³⁾	90	83	87	86	75	87	91
건축착공면적 ²⁾	18.2	7.2	16.1	3.4	9.7	0.0	-19.5
수출 ⁴⁾	-2.6	-15.9	3.2	-11.1	-4.1	-3.1	3.9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⁵⁾	-9.9	-6.6	1.1	0.3	-4.7	-1.7	-0.4
실업률	4.2	4.1	3.6	2.8	4.0	3.9	2.5
물가							
CPI ⁶⁾	0.6	0.4	0.5	0.6	0.2	0.6	0.4
주택매매가격 ⁷⁾	6.5	4.8	8.3	2.3	3.4	2.0	-2.1
주택전세가격 ⁷⁾	5.6	4.3	8.0	1.3	2.1	2.2	-1.6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큰 폭 하락

2020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¹⁹⁾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대폭 하락하였다.²⁰⁾ 4~7월 중에는 경제활동 재개 등의 상승요인과 미·중 갈등²¹⁾,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하였다가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미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²²⁾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²³⁾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유럽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신홍국의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가산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월 중 대폭 상승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의

영향으로 반락하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표 II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19		2020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92	0.67	0.66	0.68	0.91
(독일)	-0.19	-0.47	-0.45	-0.52	-0.57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195	394	290	271	222
(신홍국 CDS 프리미엄) ²⁾	173	347	195	230	150
(신홍국 가산금리) ³⁾	298	543	441	412	338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글로벌 주가 큰 폭 하락 후 상승 전환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2020년 1~2월 중 양호한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발표 내용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²⁴⁾하였다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미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특히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

19) 미 연준은 두 번의 비정례 FOMC 회의(3월 3일, 3월 15일)를 통해 정책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동일한 수준인 0.00~0.25%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국채 및 MBS 매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CP, MMF, 회사채, ABS 등에 대한 자산매입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출프로그램 등도 신설하였다.(3월 23일)

20) 다만 3월 10~19일 중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미 달러화 유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채금리가 큰 폭(+60bp) 상승하였다.

21)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 언급 및 신규 관세 부과 시사(4월 30일), 미 정부의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규제 강화(5월 15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6월 30일), 미 의회의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대중 제재 법안 통과(7월 2일)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다.

22) 미 의회는 3월 23일 약 2.2조 달러, 12월 21일 약 0.9조 달러 등 총 5차례의 경기부양책을 2020년 중 승인하였다.

23) 미 FDA는 Pfizer사(12월 11일), Moderna사(12월 18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24) 미 다우지수는 2월 12일 29,551을 기록하였다.

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²⁵⁾.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는 미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유럽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말 대비 4.0%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선진국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였으나 10월 이후로는 글로벌 교역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19년 말 대비 15.8% 상승하였다.

그림 II - 17.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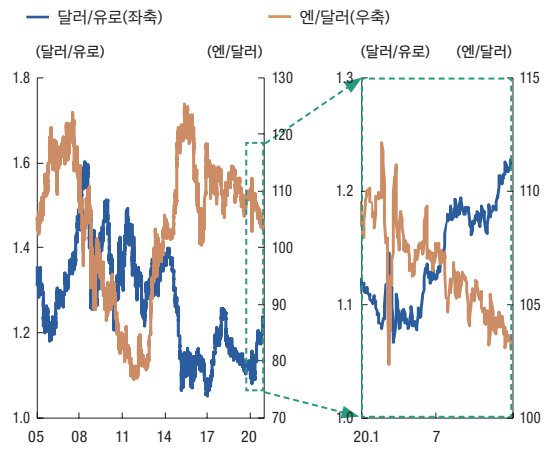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약세

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양호한 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약세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강세요인이 엇갈리면서 급등락하였다. 5

월 이후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의 영향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면서 약세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3월 중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그림 II - 18.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국내 장기금리 하락

2020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2019년 말 1.36% → 2020년 말 0.98%, -38bp). 기간별로 보면 3월 중 코로나19의 전세

25) 미 다우지수는 2020년 말 30,606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로 마감하였으며, 전년대비 7.2% 상승하였다.(S&P500지수 및 NASDAQ지수도 전년대비 각각 16.3%, 43.6%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월, 5월 각각 -50bp, -25bp) 및 국고채 단순매입,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향 안정되면서 8월 초순 사상 최저치(8월 5일 0.795%)를 기록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미 경기부양 확대 기대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국내 4차 추경 및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른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3~5월 중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받아 큰 폭 하락한 후 대체로 기준금리 수준(0.50%)에서 등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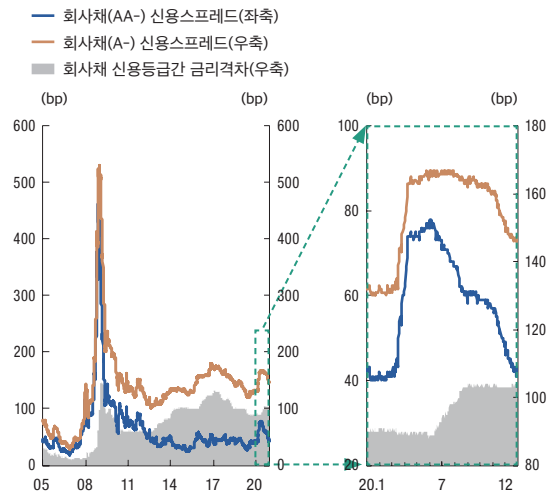
회사채(3년)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코로나19 및 정책대응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를 보면 3월 중 코로나19 충격으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²⁶⁾되었다. 그러나 7월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축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시작, 국내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비우량물 지원 지속 등으로 우량물(AA-) 뿐만 아니라 비우량물(A-)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2020년 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41bp)이 2019년 말 수준(42bp)으로 축소되었으며, 비우량물(146bp)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직후의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2019년 말 수준(132bp)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 - 19.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¹⁾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그림 II -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26)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었던 데 비하면 금번 확대폭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2020년 12월 여신금리는 2.74%로 2019년 12월(3.22%)에 비해 0.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중 2.73%로 0.63%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2.79%로 하락폭이 0.19% 포인트에 그쳤다.²⁷⁾ 2020년 12월 수신금리는 0.90%로 2019년 12월(1.6%)에 비해 0.70%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확대되었다.

그림 II - 21.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주가

코스피 급락 후 큰 폭 상승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 들어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직전 고점 대비 35.0%²⁸⁾ 급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²⁹⁾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3월 하순 이후에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큰 폭 반등하였다. 특히 11월 이후 미 정치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 백신공급 진전 및 주요 기업실적 개선 전망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9년 말 대비 30.8% 상승한 2,873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로나19 사태에 크게 영향받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2019년 말 대비 44.6% 상승한 980으로 마감하였다.

27) 이는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지표금리인 장기 은행채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더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

28) 2020년 2월 14일 2,244에서 3월 19일 1,458을 기록하여 1개월 만에 35.0% 하락하였다.

29)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5개월에 걸쳐 50.3%(2008년 5월 16일 1,889에서 10월 24일 939) 하락하였다.

그림 II- 22.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코스콤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큰 폭 확대

은행 수신은 2019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예비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전년대비 3배가량 확대되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예대율 및 LCR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유인 축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로 전환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MMF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증가, 신용증권에 대한 시장 경계감 확대 등으로 감소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타펀드는 2019년 중 일부 사모펀드 손실 및 환매중단 사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으로 증가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대체로 2019년과 비슷한 증가 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II-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수신 ¹⁾	80.8	79.5	91.6	106.3	188.4
수시입출식	60.2	34.0	10.9	65.9	189.3
정기예금	19.4	28.8	72.2	48.3	-14.4
시장성수신 ²⁾	3.9	17.7	7.8	-14.6	14.6
자산운용회사	47.6	27.9	53.8	98.6	42.2
MMF	10.9	-7.0	-7.7	15.2	21.0
주식형펀드	-7.7	4.2	7.3	2.5	-10.0
채권형펀드	18.7	-8.6	6.4	15.7	-0.4
기타펀드 ³⁾	29.6	45.3	48.3	68.0	33.4
상호저축은행	6.6	6.9	8.6	6.1	13.2
신용협동기구 ⁴⁾	35.3	44.6	39.7	60.7	50.1

(조 원)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큰 폭 확대

2020년 중 기업대출은 2019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정부 및 은행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증가 규모가 2019년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주택자금수요에 생활자금 및 주식

투자 관련 자금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도 생활·사업자금용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 등도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표 II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대출	43.1	72.2	81.8	90.2	169.6
은행					
대기업	-9.9	-3.7	6.9	-1.8	20.9
중소기업	33.8	44.0	39.8	49.4	90.0
비은행 ¹⁾	19.3	31.8	35.1	42.5	58.8
가계대출 ²⁾	131.9	100.0	76.8	57.9	125.6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40.8	21.6	30.1	39.7	49.9
(기타대출)	12.9	21.6	22.4	14.9	32.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42.6	22.6	6.8	-4.5	7.6
(주택담보대출)	14.2	10.8	-3.9	-10.4	-4.0
(기타대출)	28.4	11.8	10.7	6.0	11.6
기타금융기관 등 ⁴⁾	35.5	34.1	17.5	7.8	35.9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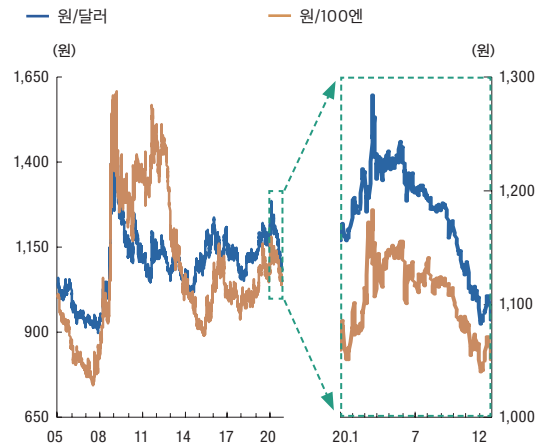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 미 달러화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285.7원³⁰⁾까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

화스왑계약 체결 및 동 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중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9~10월 중에는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중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020년 말 원/달러 환율은 1,086.3원으로 2019년 말 대비 6.1% 하락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백신 개발 기대,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미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및 대선 전개 양상 등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051.1원(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9년 말(1,059.6원) 대비 0.8% 하락하였다.

그림 II -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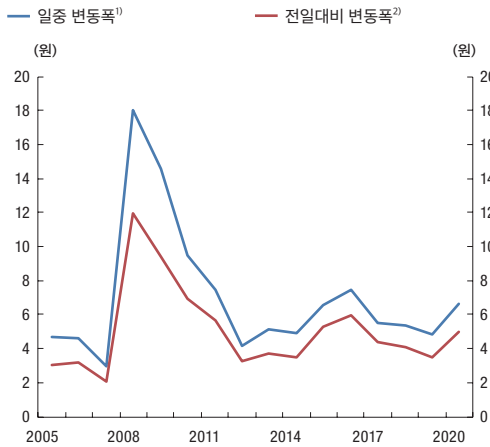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하나은행

30) 2009년 7월 14일 1,29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3월 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함에 따라³¹⁾ 각각 일평균 6.6원 및 5.0원으로 2019년(각각 4.9원 및 3.5원) 대비 확대되었다.

그림 II - 24.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큰 폭 하락 후 상승

외환스왑레이트³²⁾(3개월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증권사 등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³³⁾함에 따라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³⁴⁾를 기록하였다. 이후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내외금리차 플러스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³⁵⁾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88% 포인트 상승한 -0.04%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³⁶⁾(3년물)는 국고채 등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위험회피심리 강화, 스왑레이트 급락 등으로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국고채 금리 반등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41% 포인트 하락한 0.31%를 기록하였다.

31)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9.9원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후(2011년 10월 4일 100.7원) 최고치를, 전일대비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0.0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4월 30일 58.7)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였다.

32)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33) 글로벌 주가 급락에 따라 해외주가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발행 증권사들의 해외선물 증거금 납입(마진콜) 목적의 외화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34) 2020년 3월 24일 -2.98%를 기록하며 2008년 12월 24일(-3.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5) 다만 12월 중에는 연말요인 등으로 외환스왑레이트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6)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리보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그림 II - 25.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재(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환중개(주)